

하느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징표

영신수련 제3주간은 최후의 만찬 관상으로 시작되는데, 이냐시오는 성체성사를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징표”로 여긴다. 이냐시오에게 최후의 만찬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속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영신수련의 제3주간은 「최후의 만찬」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것으로 끝난다. 성경에서 서술하는 이 사건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잔인한 폭력에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예수님을 희생자로 그린다. 그러나 이냐시오는 제3주간의 기도를 안내하면서 종종 “수고하신다labor”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냐시오는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분은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 생애의 이 핵심적 사건을 이해하는 열쇠는 마태오 복음 26장의 최후의 만찬과 요한 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장면에 들어 있다. 이냐시오는 제3주간에 들어가면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기도 주제로 삼게 한다. 이 두 대목을 위한 기도 요점을 제시하면서 이냐시오는 성체성사 제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순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징표가 된다고 했는데, 이냐시오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성체성사를 설명하는 사건이라고 본다. 이냐시오에게는 그 반대이다. 성체성사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다.

성체성사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으로 아무것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모두 주신다는 것을 말해 준다. 심지어 당신의 적대자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인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으로 당신을 내어 주셨다.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당신을 먹일 만큼 사랑하시는 것이다. 날마다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성체성사가 십자가를 설명해 준다. 오랜 세월을 걸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많은 표현을 들어 설명했다. 신학자들은 갖가지 신학 용어들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왔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도 하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고도 한다. 인류가 진 빛을 청산했고 죄의 속박에서 풀어 주셨다고도 한다. 이 모든 이미지와 서술은 성체성사가 더욱 단순하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는 치려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대가를 치려야 했

다는 것,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당신을 내어 놓으신다는 것이다.

사랑은 그 값을 치른다. 골고타의 사랑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요구했다. 이 사랑의 구원 행위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다. 어디에나 있으며 영원히 현존한다. 이냐시오는 모든 성찬례가 우리에게 당신의 형제와 자매를 위한 사랑의 행위 속으로 끌려 들어갈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성체성사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목적과 의미가 드러난다. 성체성사는 너무도 관대한 사랑, 죽음마저도 방해하지 못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이해하게 해 주는 열쇠이다.

성체성사는 이냐시오 영성의 많은 주제를 요약해 준다. 이냐시오의 길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물고 그분을 본받으라고 요구한다. 성체성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냐시오 영성은 하느님이 사랑의 하느님, 넘치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임을 드러내 준다. 성체성사만큼 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 이냐시오의 길은 연민compassion의 길이며, 이 길은 우리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과 일치시킨다. 성체성사는 연민을 경축하는 것이다. 이냐시오의 길은 마음의 길이다. 성체성사는 하느님 마음의 전부를 보여 준다.

성체성사는 특정한 이냐시오식 질문 하나를 줄기차게 제기한

다. 우리는 하느님께 어떤 응답을 드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냐시오가 영신수련 제3주간의 첫 기도로 제시한 성경 구절인 요한 복음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성찬례를 지내시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이 일은 하인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 이러한 겸손한 섬김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 응답해야 할지를 보여 주신 것이다.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무상으로 내어 주고 봉사를 통해 나눔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한다.

이냐시오가 성체성사를 이토록 강조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경험한 현시vision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스페인의 만레사에 있는 한 수도원 경당에서 미사 참례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을 삼인칭으로 칭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거양성체 때 새하얀 광선 같은 것이 위에서 내려움을 내적인 눈으로 보았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한 그 성사에 어떻게 현존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그는 오성으로 분명히 보았다.” 이 글은 영신수련을 마무리하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을 연상케 한다. 여기서 우리는 끝없이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상상하도록 초대받는다. “태양에

서 햇살이 퍼지듯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이 비전은 <그리스도의 영혼은Anima Christi>이라는 기도를 떠올리게 한다. 이냐시오는 종종 마침 기도의 한 부분으로 이 기도를 인용하곤 했다. 이 기도에는 당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를 일치시키는 성체성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 다음은 이냐시오가 좋아했던 이 기도를 나의 말로 다시 쓴 것이다.

예수님, 당신 전체가 제게 흘러 들어오게 하소서.

당신의 몸과 피가 저의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이 저의 강함과 생명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제 곁에 계신 당신으로 족하나이다.

저의 온신처를 당신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찾게 하소서.

당신이 주시는 사랑에서 제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악의 세력에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살아가며 저를 내어 주는 죽음과도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마다

당신의 빛과 사랑을 부어 주소서.

당신의 성인들과 함께 영원히 당신을 찬미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언제나 저를 불러 주소서. 아멘.